

새해 문턱서 울려퍼지는 ‘신선한 실내악’ 선율

사람과 감정 주목 ‘신생 음악단체들’ 첫 무대

비바양상블 22일·슬러양상블 30일 광주예당서

새해 문턱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무대를 꾸린다. 실내악 단체가 잇따라 창단 소식을 전하는 것. 이들은 음악을 매개로 사람과 감정에 더욱 깊이 다가선다는 테마를 내세워 신선한 기대를 모은다.

먼저 비바양상블이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비바양상블은 지난해 8월 12일 아트스페이스 홍학관에서 명교청과 함께 선보인 ‘감정치유 콘서트’를 계기로 결성됐다. ‘비바’(Viva)라는 이름에는 활력과 생동감처럼, 클래식 음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색채와 해석으로 살아숨쉬게 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한양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광주예고 출신 조영훈 바이올린 연주자를 중심으로, 구성원들 역시 한양대 음악대학 출신이 주를 이룬다.

이번 창단 무대는 연주와 토크가 어우러진 형식으로 이뤄진다. ‘감정치유 이점’이라는 주제 아래, 자기계발도서 ‘셀프케어’

의 저자인 백명 명교청 대표가 콘서트 가이드로 나선다. 백 대표는 전남대 간호대 강사와 송원대·목포과학대 조교수, 광주 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곡 사이사이 감정을 다루는 통찰력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관객들은 음악감상에서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1부는 솔로와 듀엣의 소규모 편성으로 꾸며진다. 에이미 비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를 시작으로, 슈만·리스트의 ‘현정’,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등 친숙하면서도 섬세한 곡들이 이어진다.

헨델의 ‘파사칼리아’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통해 바로크 음악의 매력을 전하고, 브람스의 ‘인터메초’와 ‘헝가리 무곡’은 깊은 서정과 생동감을 더한다. 현악 콰르텟으로 연주되는 ‘알칭 마틸다’는 1부의 분위기를 경쾌하게 마



조영훈



백명



김은정



김은본



이주이



이현재



박효인

무리한다.

2부는 파르티트와 쿼텟으로 편성을 확장, 고전·낭만시대 깊이있는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슈만의 피아노 파르티트, 슈베르트의 ‘송어’ 피아노 쿼텟, 드보르작의 피아노 쿼텟 등 실내악 명곡을 연달아 들려주며 양상블 특유의 호흡과 조화를 선보인다. 마지막은 비발디의 ‘사계’ 중 ‘봄’, ‘겨울’, ‘여름’ 악장으로 장식된다.

무대에는 바이올린 기예람·남윤일·조영훈, 비올라 임주연, 첼로 조의현, 더블베이스 홍현수, 피아노 김명훈·박소정·최성빈 연주자 등이 오른다.

비바양상블 창단연주회 관계자는 “음악과 코칭 강연이 하나의 치유 프로세스로

결합된 무대”라며 “관객들이 내적 이완과 활력을, 평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슬러양상블의 창단기념 음악회가 오는 30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슬러양상블은 각자 개성을 지닌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음악으로 잇겠다는 목표로 창단한 연주단체다. ‘이음’을 키워드로 삼은 이번 무대는 ‘음악과 사람, 지역과 사람, 사랑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담아낸다.

첫 번째 ‘음악과 사람’에서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을 통해 연주

자와 청중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두 번째 ‘지역과 사람’에서는 빛의 도시 광주가 지닌 정서와 기억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과 드뷔시의 ‘달빛’으로 도시의 감성과 풍경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마지막 ‘사랑과 사람’에서는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이음에 주목한다. 가족과 연인이라는 서로 다른 사랑의 형태를 음악에 담아낸다. 볼콸의 ‘우아한 유령’을 비롯해 가르델의 영화 ‘여인의 향기’ OST 중 ‘Por una Cabeza’ (간발의 차이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무대를 채운다.

연주는 피아노 김은정, 바이올린 김예본, 첼로 이주이, 플루트 이현재, 클라리넷 박효인 연주자가 맡는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예본씨는 “슬러양상블은 이음이라는 뜻을 가진 슬러처럼, 음악으로 지역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기 위해 창단된 클래식 단체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어 평소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작은 도서관과 학부부 초청 음악회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연주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감정과 관계를 음악으로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창단연주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립광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재개관 2주년을 맞아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사진은 어린이 관람객이 도자기 쿠션에 천으로 만든 장난감을 붙이는 모습.

어린이박물관 재개관 2주년 “새 콘텐츠로 문화유산 즐겨요”

광주박물관, 도자기 쿠션3종·안내 카드 선포

영유아 대근육 발달…호기심·탐구심 증폭 기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은 어린이박물관 재개관 2주년을 맞아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먼저 유아놀이터를 방문하는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과 광주박물관을 대표하는 도자기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청이·쭉이·백이 쿠션을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 만든 쿠션은 영유아들이 천으로 만든 장난감을 붙이거나 찢으면서 도자기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청자 매병 모양의 청이는 여덟 조각으

로 잘라서 만든 쿠션을 직접 찢으면 높이 120cm의 도자기 모양이 완성된다. 분청사기 굽 높은 잔(高足杯)을 본뜬 쪽이는 5개의 쿠션 퍼즐을 맞춰 완성하는 체험물로, 영유아의 인지 발달을 돕는다.

달항아리 모양의 백이는 벽면에 고정돼 다양한 무늬의 인형을 붙이며 자신만의 도자기를 꾸밀 수 있다.

새롭게 만든 도자기 쿠션 3종은 어린이박물관 내 유아놀이터에 비치돼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더 알차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솔자용 안내서 ‘함께 카드’를 새롭게 마련했다.

광주박물관의 대표 캐릭터 광박이가 도자기 장인이 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함께하며 어린이박물관 전시를 안내한다. 관람객은 어린이박물관 구역별로 제안된 오감 활용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과 연결해 사고할 수 있다. 함께 카

드를 이용하면 어른은 어린이의 상상력 발달에 기여하고, 어린이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함께 카드는 어린이박물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다. 회차별 선착순 30명까지 함께 카드를 대여하고 회차가 종료되면 반납해야 한다.

최홍선 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재개관 2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즐겁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함께 카드’를 통해 어른과 어린이가 어린이박물관에서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소나무 400그루 효과…폐가전 ‘자원순환’ 실천

광주미디어센터, ‘미사이클 캠페인’ 시즌5 성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최유명·광주미디어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진행한 폐미디어 기기 및 폐전자제품 기부 캠페인 ‘미사이클(Me-Cycle) 시즌5’을 통해 총 889kg의 폐가전을 수거, 자원순환 센터에 기탁했다.

‘미사이클’은 미디어(Media)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방치된 미디어 기기 및 전자제품을 수거해 자원화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대표적인 ESG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시즌5 캠페인에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소속 기관(광주문화재단·국립광주과학관·광주비엔날레·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KCTV광주방송이 공동 참여하며 지역사회로 확산된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889kg의 폐전자제품은 협력기관인 ‘E-순환거버넌스’로 전달돼 친환경적인 공정을 통해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탄소 저감량으로 환산 시 약 2.6t(CO2)에 달하며, 어린 소나무 약 4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등한 수치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제품을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전제품 내 구리, 알루미늄 등 희유금속을 추출해 자원화하고 냉매 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탄소 저감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미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CC, 몽골 유학생 초청…체험·전시 관람 ‘호응’

조선대학교 협력 프로 운영 ‘상생 모델’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15일 조선대학교 유학생지원팀과 협력해 아시아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ACC가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해외 청소년들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ACC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행사에는 몽골의 예비 유학생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몽골 청소년들은 이날 ACC의 독특한 건축 미학을 탐방하는 ‘전당 투어’와 중앙아시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 전시 ‘길 위의 노마드’를 관람했다.

특히 아시아 전통 기법을 활용한 ‘아시아 예술체험’ 프로그램은 한국과 아시아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전문 강사와 함께 아시아 전통 기법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아시아 공예’ 시간에는 정정은 강사와 아시아의 다양한 나전칠기 문화를 탐구



하고, 자신만의 문양을 담은 나전칠기를 제작하며 동아시아 철공예의 정수를 체험했다. ‘아시아를 세기다’ 수업에서는 권동원 강사와 함께 아시아 문자와 인장 문화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과 전통 문양으로 새긴 인장을 직접 조각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결과물을 완성했다.

ACC는 이번 협력이 지역대학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기관의 사회 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잠재적인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2026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시공모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접수…단계별 지원 강화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2026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시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음용 문화예술교육(개인·단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등 총 5개 사업으로, 전남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 내 문화

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기간은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33일간이다. 신청 접수는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재단은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오는 30일 남악 복합주민센터 공연장에서, 2월 4일 순천 전

남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각각 진행해 사업별 세부 내용과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한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단계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